

AI원팀 사업협력 첫 성과

KT-LG전자, AI 플랫폼 서비스 연동

〈기가지니·씽큐〉

스마트미러에 '기가지니' 결합
뉴스·지니뮤직 등 콘텐츠 제공
양사 서비스 고도화 거쳐 사업화

'AI 원팀'에서 활동 중인 KT와 LG 전자가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KT는 LG전자와 'AI 원팀'의 사업화 첫 성과로 KT 기가지니와 LG 씽큐의 연동 검증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KT와 LG전자는 최근 경기도 판교에 있는 'LG 씽큐(LG ThinQ) 홈' 실증단지에서 KT의 인공지능 플랫폼 '기가지니'와 LG전자의 인공지능 플랫폼 'LG 씽큐'를 연동하는 검증 작업을 마쳤다. 이번 연동 검증은 지난해 LG전자가 AI 원팀에 참여한 이후 지속해 온 양사간 사업 협력의 첫 성과다.

이번 검증 작업에선 LG전자가 개발한 스마트홈 솔루션인 '스마트미러'를 활용했다. 스마트미러는 가전제품 제어, 날씨 안내, 길찾기, 일정 관리를 비롯해 주택 내 에너지의 생산, 사용, 저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KT 기가지니가 제공하는 뉴스, 지식검색, 지니뮤직 등의 서비스를 LG전자 스마트미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이 "하이 엘지, 뉴스 들려줘"라고 말하면 스마트미러는 "기가지니에서 뉴스를 들려드릴까요"라고 말하며 뉴스를 읽어주는 식이다.



LG전자 직원이 KT 기가지니 AI 기술이 적용된 LG 스마트미러를 활용해 지니뮤직 음악감상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KT

양사는 이를 위해 각 사의 인공지능 플랫폼이 하나로 연동되는 인터페이스와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이후 서비스 고도화를 거쳐 사업화에 나설 예정이다.

앞으로도 양사는 AI원팀을 통한 협력으로 고객이 스마트미러뿐 아니라 LG전자의 다양한 제품에서도 인공지능 플랫폼이 연동되도록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은 "개발

화 전략에 기반한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송재호 부사장은 "이번 양사의 협업은 AI 원팀의 사업 협력 결과로 나온 첫 결과물로 의미가 크다"며 "KT는 이번 AI 원팀 협력 모델을 다양한 참여기관 및 분야로 확대해 AI 시너지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금호석화, 신임 대표에 백종훈 부사장 선임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 내 위원회 재편

금호석유화학이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5명의 이사와 함께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위원회 운영 등 논의를 진행했다.

금호석유화학은 6일 우선 신임 대표이사에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출된 백종훈(사진) 부사장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전면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다. 올해 정관 변경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3개의 위원회 중 내부거래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ESG위원회는 사외이사를 3분의 2이상으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사외이사



가 맡아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한층 제고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에는 황이석 사외이사,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정미 사외이사, ESG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순애 사외이사가 각각 선임됐다. 보상위원회는 작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재경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각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사진이 금호석유화학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 및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데 힘써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이통사, 5G망구축 총력... 올해 26兆 투자

>> 1면 '비싸고 잘 안터져요...'서 계속

가입자 및 데이터 트래픽 통계 자료에 따르면, LTE 가입자 대비 5G 가입자는 27%에 불과하지만, 5G 데이터 트래픽은 LTE 대비 91%에 달한다.

5G 상용화 3년차인 이동통신사는 올해 5G 망구축에 약 26조원을 투자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5G 요금제 라인업 정비...중·저가로 확대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는 올해 5G 요금제 라인업을 정비하고 요금 선택권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동통신사는 5G 신규요금제를 내놓고 5G 중저가 요금제 라인업을 정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달부터 5G 신규 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월 6만9000원에 데이터 110GB를 제공하는 '5GX 레귤러'와 월 7만9000원에 데이터 250GB를 제공하는 '5GX 레귤러플러스' 2종이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의 5G 요금제 라인업은 청소년 대

상 요금제와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는 '언택트플랜'을 포함해 9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G 가입자가 증가하는데 따른 고객의 이용패턴과 요구를 감안해 지속적으로 고객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지난 3월 온라인 전용 혜택을 늘린 'Y 무약정 플랜'을 출시했다. 5G Y 무약정 플랜은 월 5만5000원에 200GB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5G 무약정 플랜 슬림'은 월 3만7000원대에 1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5G 요금제 단가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고 KT 측은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지인간 요금 결합이 가능한 'U+투게더'를 출시해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가족을 비롯해 지인까지 가능한 결합 상품으로, 최대 5명까지 결합해 할인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 측은 "합리적 소비를 원하는 고객 니즈에 맞춰 5G 요금제 확대를 위해 노력해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5G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인 기자

아이마켓코리아, 지아이이노베이션 200억 투자

보통주 60만6060주 확보
헬스케어 분야 포트폴리오 강화

아이마켓코리아가 헬스케어 분야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신사업 발굴에 나섰다.

아이마켓코리아는 혁신신약개발기업 지아이이노베이션에 200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아이마켓코리아는 지아이이노베이션의 보통주 60만6060주(지분율 3.7%)를 확보하게 됐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2017년 설립된 혁신신약개발기업으로 설립 3년만에 1조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2건을

연속으로 성공시키며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러한 성과와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올 상반기 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상장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아이마켓코리아는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전문 유통 자회사인 안연케어와 가디언을 통해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모회사인 인터파크와 공동으로 혁신신약개발기업인 인터파크바이오컨버전스를 설립했으며, 지아이이노베이션과 같이 유망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확대하는 등 헬스케어 역량 강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아이마켓코리아는 지난 2018년 혈액 기반 신경 퇴행성 질환 전문 바이오 기업인 피플바이오에도 15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피플바이오가 기업공개(IPO)에 성공하며 아이마켓코리아가 재무적 성과를 거뒀음은 물론이다.

아이마켓코리아 관계자는 "지아이이노베이션은 면역항암제와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등 혁신 신약 개발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 무궁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공동 연구 개발이나 공동 사업 형태로 시너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아시아나, 미주 탑승객 수하물 추가 제공

6월1일~8월16일 탑승 고객 대상

아시아나항공이 미주 노선 탑승객에게 기본으로 제공하는 수하물(2개) 외 1개(23kg)를 추가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6일 오는 12일까지 한국발 미주행 4개 노선(뉴욕·로스앤젤레스·시애틀·샌프란시스코)의 편도

항공권을 구매하는 일반석 탑승객 대상이 같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탑승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오즈드림페어 이벤트를 통해 구입 가능하다. 국내 모든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달 미국 질병

통제예방센터(CDC)가 미국 학교 대면 수업 재개 권고안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미국으로 출국하는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노선의 경우 초과 수하물 1개의 운임은 한화 약 20만원(200 USD)에 달하는 고액으로 미국 복귀 시 짐이 많은 유학생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제주항공, 제주기점 국내선 101편 운항

하루 기준 역대최다 운항편수 경신

제주항공이 제주기점 국내선에서 이들 연속 세 자릿수인 101편을 운항하며 하루 기준 역대 최다 운항편수를 기록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4일 제주-김포 노선 46편 운항을 비롯해 ▲제주-청주·대구 각 14편 ▲제주-부산 12편 ▲제주-광주 7편 ▲제주-여수·군산 각 4편을 운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제주항공을 이용한 여객 수도 역대 최다인 1만7029명이며 탑승률 90%를 기록했다.

지난 5일에도 제주~김포 45편 등 총 101편을 운항해 1만6920명을 수송하며 이들 연속 세 자릿수 운항편수를 달성했다. 제주항공은 봄철 제주를 찾는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기점 국내선에 지속적으로 운항을 확대하고 있다.



제주항공 항공기.

지난 달 제주기점 국내선 1일 운항편수는 79편 수준이었으나, 이달 들어서는 25% 가까이 증가한 평균 98편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4월 1일~4월 5일)에 비해서는 1일 평균 40% 증가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기점 노선에 운항을 대폭 늘리면서 제주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의 항공권 예약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제주도민들의 물나들이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